

# 기쁨의 언덕으로 2020년 1월호 “갈라디아서-데살로니가후서” 소그룹 교재 인도자 매뉴얼

## 소그룹 교재 1: 1월 5일(주일)

- 제목: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 본문: 골로새서 2:1-10
- 찬송가
  - 1. 새 412 장(통 469 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2. 새 462 장(통 517 장) 생명 진리 되신 은혜 되신
  - 3. 새 32 장(통 48 장) 만유의 주재
- 여는 질문: 최근에 나에게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준 책을 꼽는다면 어떤 책입니까? 만일 성경이라면,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읽은 책이나 혹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나에게 보화와 같은 책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본문 이해: 사도 바울은 개척된 얼마 안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특정한 위협과 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같은 독특한 위치를 격하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비적이면서도 금욕적인 가르침, 그리고 천사 숭배(2:18)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선재성, 충분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2 절).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8 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초등학문은 주로 땅과 지구, 물이나 불과 같은 물질 세계의 기초 요소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피조물이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2:8, 2:20). 케플러 행성운동법칙을 발견하고 케플러식 망원경을 발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년)는 자신이 과학을 연구하는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조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거기에 부여하시고 수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합리적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동시대의 갈릴레오(Galileo Galilei)는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수학의 언어로 작성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저명한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James Simpson)은 마취약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나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라는 사실입니다<sup>1</sup>”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안에 담긴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 담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였고 그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으며, 그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잠언 기자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잠 2:2)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감추어진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잠 2:4).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2-3 절) (그리스도)
- 2.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거짓 가르침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4, 8 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다른 번역에서 ‘우주의 원리들’ 혹은 ‘기초적인 영들’이라고 번역이 되곤 합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 피조물에게 마치 창조주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예로 들면, 점집에 가서 운을 쳐본다거나 점성학을 통해 운명을 알아보려는 시도들이 그러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온 시선을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 삶 속으로

- 1.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케플러, 갈릴레오, 파스칼 등)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이 진행한 과학 연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주된 영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얻었던 경험들을 서로 나눠봅시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속임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 장의 말씀은 나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답해주고 있습니까?

- 암송 구절: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 자녀와 나눔:

<sup>1</sup> <https://www.christianheritageedinburgh.org.uk/2016/08/23/sir-james-young-simpson-1811-1870/>

- 1.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물건, 사람 등)은 무엇, 누구인가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보물조차도 주님께 속해있으며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소중한 보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궁극적인 보물이신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2. 나에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나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께 작은 일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5 절도 좋은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 소그룹 교재 1: 1 월 12 일(주일)

- 제목: 주어가 바뀐 인생
- 본문: 갈라디아서 2:15-21
- 찬송가
  - 1. 새 260 장(통 194 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 2. 새 144 장(통 144 장) 예수 나를 위하여
  - 3. 복음성가 "내 안에 사는 이" Christ in me is to live
- 여는 질문: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려다가 오히려 그 열심히 때문에 망친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어떤 일이었고 그로부터 내가 깨달은 교훈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누구나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는 질문이니 너무 무거운 내용보다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 본문 이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1 장에서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4). 바울의 열심은 지나친 "나"의 열심이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의 주어는 더이상 '내'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 2 장 20 절에서의 '나'를 'my ego 내 자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자아는 더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My ego is no longer central." 여기서의 '자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자아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왜곡된 자아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박힌 것이고(수동태), 그 결과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갈 2:20)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어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어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을 되돌아보며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주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 15:18).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십자가에서 바뀐 “주어”였습니다. 그는 나의 뜻과 열심대로 하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구했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과거에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영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틀은 그의 책 “*Life in Christ*”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8 개의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rough Christ -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On Christ -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며, In Christ -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며, Under Christ -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며, With Christ -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Unto Christ -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For Christ -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마지막으로 Like Christ -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이 고백이어야겠지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뿐입니다. 모두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 말씀 속으로

- 1. 문맥상 바울이 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8 절)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헐었던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고자 했던 자기 의라는 벽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게 되었습니다)
- 2. 바울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고백합니까? 이제 그의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20 절) (자기 의로 가득찼던 바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새사람이 된 바울은 그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 삶 속으로

- 1.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누군가를 비판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 2.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사결정, 선택, 시간과 재정 사용,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었을 때의 내 모습과 주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의 특징은 20 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과 재정 사용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일인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타인을 위한 결정과 선택인지를 살펴보면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암송 구절: 갈 2:20a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자녀와 나눔:
  - 1.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 2. 예수님을 믿는 아이는 나의 이기적인 나쁜 습관을 버린 아이입니다. 아직도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소그룹 교재 1: 1 월 19 일(주일)

- 제목: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본문: 엡 6:13-18
- 찬송가
  - 1. 새 359 장(통 401 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 2. 새 352 장(통 390 장) 십자가 군병들아
  - 3. 새 88 장(통 88 장) 내 진정 사모하는
- 여는 질문: 내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항상 적시 적소에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결정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면 좋겠습니다)
- 본문 이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맨 마지막에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을 소개합니다(17 절). 바울은 이 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칼은 2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spatha* 라는 3feet 되는 긴 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gladius* 라는 칼인데 18inch 정도 되는 양날의 끝이 날카로운 짧은 칼입니다. 이 칼은 적과 근접했을 때 적의 심장과 폐를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칼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는 이 *gladius* 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3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graphe*, 즉 scripture(딤후 3:16)입니다. 둘째는 *logos* 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세번째는

레마(*rhema*)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rhema*(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들려진 말씀(spoken word)입니다. 즉 누군가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듣게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 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rhema*(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요 10:27).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 검은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 검을 제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눈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조명(illumination)을 위한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을 소개한 이후에 바로 18 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는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검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13 절).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고 사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물리치는 주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take up)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절) (취하라는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내' 자신이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만 입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하며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입고 사용하는 일을 간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설명된 부분을 영어로 보면 have 와 take 동사가 주로 쓰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함을 뜻합니다)
- 2.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은 무엇이며 어떤 검이라고 했습니까? (17 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 삶 속으로

- 1.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하기 위해(take up) 말씀 목상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의 말씀 목상의 습관을 돌아봅시다. 특히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 목상을 위해 내가 오늘부터 훈련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깊이있는 말씀목상은 짧은 시간의 읽기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읽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차분한 가운데 천천히 인내하며 말씀을 곱씹고 소화할 때에 말씀에 숨겨진 진액이 흘러 나옵니다. 급히 읽던 습관에서 천천히 묵상하는 습관으로, 내가 읽으려는 방식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읽으실수있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 2.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적은 언제였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 암송 구절: 에베소서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자녀와 나눔:
  - 1.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요?
  - 2. 혹시 내 마음 속에 ‘넌 나쁜 애야...못 냈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스바냐 3:17 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나요?

#### 소그룹 교재 1: 1 월 26 일(주일)

- 제목: 자족하는 비결
- 본문: 빌 4:10-20
- 찬송가
  - 1. 새 368 장(통 486 장) 주 예수여 은혜를
  - 2. 새 292 장(통 415 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3. 새 286 장(통 218 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여는 질문: 최근에 내가 가장 만족했던(혹은 불만족했던) 일이나 업무, 사건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본문 이해: 바울은 십계명의 제 열번째 계명을 살아내는 법을 터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계명은 “탐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더 탐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11 절). 사실 사람의 갈망은 선천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배고프다면, 그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새끼 오리가 헤엄을 치고 싶다면, 헤엄칠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욕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물건이나 어떠한 성취나 영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더 많은 부를 쌓거나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는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둘 때에 그 탐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의 첫째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열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라”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결을 배운 겁니다(12 절). 바울은 단지 이 비결을 발견한게 아니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족의 비결은 한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배부름과 풍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지상에서 주어지는 복들을 무시하거나 금욕주의적 태도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풍요로움과 쾌락들은 금새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비결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와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우리는 자족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채,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의 필요를 두번이나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갈망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15-16 절). 그들도 역시 자족함을 배우고 자신들의 삶의 한계를 지은 다음 자신들이 가진 일부를 바울의 선교를 위한 후원 물자로 보낸 것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18 절). 세상의 온갖 욕망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어거스틴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자의 고백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2 절) (바울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 2.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13 절)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 삶 속으로

- 1.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가지를 놓고 불평, 불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뱀이 인간을 유혹했던 방식입니다. 그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수있습니다.)

- 2. 빌립보 성도들처럼, 내가 자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겨야 할 부분들(교회, 선교지)은 어디입니까?
- 암송 구절: 빌 4:11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자녀와 나눔:
  - 1. 내가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2.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